

북한의 지정학 게임: 러·북 협력 강화와 미·북 회담 가능성

전경주 |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한반도안보연구실장 | jeonk@kida.re.kr

I. 머리말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이 2023년 5월 해제되자, 이 기간에 3년 반이 넘게 국경의 완전 폐쇄를 선언했던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기 시작했다. 폐쇄를 유지하는 동안, 북한은 2019년 초까지 있었던 일련의 미·북 협상 과정을 복기하고, 향후 전개될 국제질서 속에서 어떻게 대외 관계를 구축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숙고가 있었던 것 같다. 그 결과 북한은 2023년 11월,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 일부 재외공관에 대한 폐쇄를 알리며 국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변화된 외교 관계를 예고했다.¹⁾ 이후 서방 국가들의 평양 대사관 재개가 지연되고 있는 한편,²⁾ 러시아, 중국, 이란, 베트남, 몽골, 쿠바, 인도 등의 국가에 대해서는 공관 운영을 재개하고 협력을 추구해 오고 있다.³⁾

그런 중에 여러 의미에서 가장 두드러진 관계는 러시아와의 관계다. 탈냉전 이후 크게 관심을 두지 않던 러시아와 갑자기 관계를 강화한 점, 북한과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과의 관계와 비교해서도 러시아와 더 가까워진 것으로 보이는 점, 또 이 관계의 지속을 위해 새로운 조약을 맺고, 포탄 지원에 이어 파병을 하는 등 매우 대담한 결정을 한 점에서 그러하다. 이로써 코로나19 이전 북한 대외 관계의 모습과는 크게 단절된 것처럼 보인다. 이전까지 북한과 가장 가까운 우방국은 중국이라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었지만, 이제 ‘러시아인지

1) 북 외무성 2022년만 해도 북한은 “자본주의나라들과도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외교전을 모색”한다고 했으나, 2024년 말 전위원회에서는 북한에 “친선적이고 우호적인 나라들과의 관계발전”에 집중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2022. 9. 13.
2) 『Voice of America』, 2024. 9. 17; 2024. 11. 16; 『연합뉴스』, 2024. 6. 8.
3) NK News Podcast, 2024. 12. 31; 『조선일보』, 2024. 9. 17.

중국인지가 논쟁적인 문제가 되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공식적인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제한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러시아와 무인기 공동개발, 그리고 군사훈련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⁴⁾ 또 과거 북한 대외 관계의 큰 축 중 하나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었지만, 미국의 바이든 정부 임기 동안 협상에 대해 전혀 기대가 없는 모습을 일관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보이는 바대로 코로나19 이전과의 단절을 추구하는 것일까? 북한은 앞으로도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지속하고, 미국과는 대화하지 않을 것인가? 본고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며, 특히 트럼프 2기 출범으로 특히 변화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한다. 러·북 협력 강화는 북한이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내린 결정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북한의 전략적 이익을 제고한 측면이 더 크고, 이는 미국을 상대로 할 때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먼저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북한이 어떻게 대미 위협과 협상력을 높아졌는지 분석하고, 이것이 미·북 정상회담 재개의 시기, 의제, 그리고 한국과의 조율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II. 러·북 협력 강화

1. 러·북 협력 심화의 배경

2024년 6월 19일,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이것이 ‘우크라이나 특수’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북 조약에 대한 러시아의 준수 의지가 약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⁵⁾ 하지만 북한이 파병을 결정함에 따라, 오히려 러·북 관계는 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쟁이 끝난다 해도 지속될 것이며 전략적 효과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졌다. 이를 뒷받침하는 데는 다음의 근거들이 존재한다.

첫째, 러·북 관계의 강화 조짐은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형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특수만으로 단순화하기 어렵다. 이미 그때부터 러시아는 북한과 두 번째로 교역을 많이 하는 국가였으며, 양국 간의 경제협력은 그 이전부터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⁶⁾ 2019년

4) 『연합뉴스』, 2025. 2. 9; *Voice of America*, 2024. 11. 8.

5) 이러한 판단에는 북한과 소련/러시아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불신의 관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그리고 전쟁 물자 지원으로 인해 절박한 러시아가 북한에 우호적인 조약을 체결했다는 해석이 작용했다. 또한 러시아가 한국과 수교를 맺은 지 5년만인 1995년에 북한과 상호군사 조약을 폐기한 전례처럼, 곧 조약을 폐기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되었다. 이번에 맺은 조약에도 폐기 관련 조항이 존재하여,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했다.

6) 정은숙, 2015.

4월,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2019년 교역은 급격히 증가했다. 2019년 교역 총액은 4,790만달러로, 전년 대비 40.6% 증가했고, 북한 전체 교역 중 러시아의 비중도 전년도 1.2%에서 1.48%로 확대됐다.⁷⁾ 하지만 코로나19로 국경봉쇄가 시작되고, 교역은 다시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⁸⁾

둘째, 조약이 없는 중에도 양측간 전평시 협력이 추진되어왔고, 특히 조약 체결 전부터 포탄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약은 이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서로 구속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⁹⁾ 실제로 새로운 조약에는 △식량 및 에너지 안전, 정보통신기술 안전, 기후변화, 보건, 공공망 등에 공동 대처, △무역경제, 투자와 관련된 제도 및 단체 관련 협조, △우주, 생물, 평화적 원자력,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등을 언급했다. 해당 내용들은 과거 조소조약에 없던 내용으로서 향후 서로 일치된 이해관계를 갖는 다양한 분야를 식별했다.

셋째, 북한이 단기에 끝날 수 있는 관계를 위하여 파병과 같은 대담한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파병은 북한 정권 입장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모험이다. 2025년 2월 현재까지 북한은 러시아 파병에 대해 북한 주민들에게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이를 알렸을 때 정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예상된다면, 알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실제 전장이라는 사실도 숨긴 채 병사들을 보내서 제대로 훈련도 받지 않은 현대전에 투입하여 쉽게 희생당하도록 한 것이 북한 내부에 알려지게 되면, 정권의 불안정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¹⁰⁾ 정권의 안위를 가장 중시하는 북한이 이 같은 위험을 무릅썼다는 것은, 그만큼 이 관계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 두 국가가 현재의 관계를 지속할 것이라는 판단의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미국 주도의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해 전면 부정해 왔고, 이에 대해 서로 크게 지지하는 등, 미국에 대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2014년 2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도전할 때, 북한은 유엔 총회에서 크림반도 합병 규탄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던 10개국 중 하나였다. 그리고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유엔 총회의 규탄 결의안에 대해 반대한 5개국 중 하나이기도 했다. 한편, 러시아는 중국과 공동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라는 안보리 결의안을 두 차례 제출한 바 있고,¹¹⁾ 2024년 북한의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기간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미국 주도의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를

7) KOTRA 신북방동북아팀, 2020.

8) KOTRA 신북방동북아팀, 2021.

9) 『통일뉴스』, 2024. 6. 20.

10) 최용환, 2024, 11.

11) 2019년 12월, 그리고 2021년 11월에 제출했다. 『통일뉴스』, 2011. 11. 3.

무력화했다.

관련하여, 북한은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에 추진할 사업들을 제기하는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러시아를 언급하지는 않았다.¹²⁾ 대신 김정은은 현재 국제 정세는 다극 세계로 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주세력권’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패권세력권’의 입지가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는 인식을 제시했다. 달리 표현하자면 자주세력권은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는 수정주의(revisionist) 세력으로서, 북한은 이들과 연대를 이루고, 미국을 위시한 현상 유지 세력과의 대결을 추구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즉, 북한은 기존 세계 질서를 다극 질서로 수정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가장 공세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는 러시아와 손을 잡고자 한 것이다.

2. 러·북 협력의 전략적 효과

러·북 협력과 관련하여 현재 가지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북한이 러-우 전쟁에 활용될 포탄과 병력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포탄은 러시아의 요청인 것으로 보이지만, 병력은 북한이 먼저 제안한 것이다.¹³⁾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 얻고자 하는 이익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경제적 이익은 가장 덜 중요해 보인다. 파병에 대한 대가로서 러시아가 용병에게 주는 월급 약 미화 \$2,000를 기준으로 한다면, 북한이 연간 인원 1만명을 용병 형태로 파병해서 벌어들이는 외화는 연간 3.2억달러 정도이다.¹⁴⁾ 해당 금액은 북한이 다른 수단, 예컨대 암호화폐 해킹이나 해외 근로자 파견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와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서, 단지 이 정도의 외화 수입을 노리고 국내 정치적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하기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¹⁵⁾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게 될 중요한 이익은 군사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첨단 군사기술 이전과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이 파병의 대가가 될 것이고, 현대전에 대한 실전 경험은 파병의 기대효과가 될 것이다. 이중 현대전에 대한 실전 경험은 대남 전쟁 수행 능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¹⁶⁾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전략적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고에서는 첨단 군사기술 이전과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실제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이러한 이익을 얻게 된다면, 미국에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2) 언급된 국가는 미국과 대한민국뿐이다.

13) *Voice of America*, 2024. 12. 10.

14) 임수호, 2024, p. 2.

15) 임수호, 2024, p. 5.

16) 전경주, 두진호, 2024.

우선 첨단 군사기술과 관련해서,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계획에서 완수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러시아의 도움을 얻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이 계획 이행 마지막 해인데, 아직 일부 무기체계가 비교적 초기 개발단계이거나 개발단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무기체계는 정찰 위성, 극초음속미사일, 다탄두개별재진입체(MIRV), 그리고 핵 잠수함(SSBN) 등으로서, 실제로 러시아와의 협력이 활발해진 뒤로 각각에 대한 관련 성과가 보도된 적이 있다.¹⁷⁾ 따라서 상당한 첨단 군사기술이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미국 당국자도 이를 확인한 바 있다.¹⁸⁾

이러한 무기체계들은 모두 자력으로 개발의 진척을 앞당기기 어려운 무기체계들이며,¹⁹⁾ 그런 만큼 한·미 동맹에 전략적 수준의 위협을 가함으로써 한·미에 대한 북한의 억제 태세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신뢰성 있는 정찰 위성을 갖게 될 경우, 한반도와 주변의 주요 기지나 병력 이동, 주요 전략 자산 동향 등에 대한 정밀 감사가 가능하고, 미사일 유도 및 타격 정밀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무인기 조종 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²⁰⁾ 극초음속미사일과 다탄두개별재진입체는 미국의 요격 능력으로도 요격에 어려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 중에서도 핵 잠수함은 가장 결정적인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무기체계로서,²¹⁾ 북한이 미국에 대해 신뢰성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러시아가 한반도 유사시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국 간 조약 중 전쟁 발생 시 상호 군사 지원한다는 내용을,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과 포탄을 공급함으로써 먼저 이행했다. 이로써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을 넘어 피를 나눈 국가가 되었다. 러시아가 약속을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어렵지만, 러시아는 보유한 무기체계들을 지원하는 제스처만으로도 한국에 대한 억제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보유하고 있는 핵 잠수함을 한반도 인근에 전개하는 정황 등을 의도적으로 노출할 수 있다. 이는 북한군의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전시에 북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서,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함에 있어 추가적으로 우리 군이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됐다.

종합하면,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하여 미국에 더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게 됐다. 즉, 북한 미사일의 신뢰성이 제고되는 것과 더불어 러시아가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할

17) 대표적인 예로, 이제껏 전혀 언급이 없던 핵 잠수함과 관련해서 대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연합뉴스』, 2024. 10. 8.
 18) 『연합뉴스』, 2025. 1. 6; *Voice of America*, 2024. 11. 20.
 19) 러시아가 전략적 수준의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 지원은 꺼릴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러시아가 정찰 위성 시험 발사 성공을 지원한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만큼, 완전히 단정할 수는 없다. Jeon, 2024; Cha, 2024.
 20) 『연합뉴스』, 2024. 1. 18.
 21) Kim, 2021.

정황이 더 커진 것이다. 이에 맞서 미국이 동맹인 한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공약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거나,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는데 사용하는 능력 발전을 더디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 억제태세를 제고하며 군사적인 위협의 강도를 높이기도 막상 쉽지 않다. 한반도를 넘어 러시아와 중국과의 위기도 함께 고조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러·북 협력으로 인해 북한이 미국에 야기하는 위협은 그대로 두기도,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더욱 어려운 일이 됐다. 그리고 이처럼 높아진 북한의 위협은 북한의 협상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III. 미·북 회담 가능성

2025년 1월 2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취임했다. 직전의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전혀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김정은이 최초로 만난 미국 대통령이며, 당시 극적으로 이루어진 미·북 회담이 결렬되었지만, 또 재개할 수도 있는 인물로 평가됐다. 따라서 그의 재선을 계기로 미·북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졌다. 재개를 전제로 한다면, 쟁점은 다음과 같다. △언제 재개될 것인가, △회담 의제는 무엇이 될 것인가, 그리고 △회담과 관련하여 미국이 한국과 사전 조율을 할 것인가이다.

그런데 러·북 협력에 따른 결과가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북한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다. 우선 회담 시기가 트럼프 임기 초가 될 가능성을 높이고, 러·북 협력으로 인해 회담 의제이자 미국이 북한에 요구할 사항으로서 비핵화 이외에 추가될 만한 것들이 생겨났다. 셋째, 미·북 회담 재개 시기가 러-우 전쟁 초와 맞물려 트럼프 임기 초가 된다면,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그리고 러시아도 관련국으로 개입된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가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기가 곤란할 수 있다.

1. 회담 시기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라는 두 개의 전쟁을 종결시키는 것을 정책적 최우선 순위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미·북 회담을 먼저 준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3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부당성에 정면으로 대립하여, 서방 국가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3년이 다 되도록 지원해 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경제적,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내역을 돈으로 환산할 경우 약 미화 \$1,190억 정도인 한편, 유럽에 속한 모든 국가가 지원한 내역을 다 합쳐도 그 절반도 되지 않는다.²²⁾ 이와 더불어, 전쟁 발발 시점인 202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경제적 지원, 인도적 지원을 합쳐 미화 약 \$125억~\$179억 규모로 추산되는 지원을 제공했다.²³⁾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전쟁을 최대한 빨리 종결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종전을 위해 상당한 외교전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뜻대로 두 전쟁 모두를 빠른 시일 내에 종료시킬지는 아직 미지수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종결하는 대안으로서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는 안을 제시하자, 이에 대한 미국 내외의 비판이 빗발치듯 쏟아지고 있다. 러-우 전쟁에 대해서도 종전 협상을 위한 중재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2025년 2월 13일, 트럼프가 푸틴과 젤렌스키와 연이어 통화하고, 종전 협상 시작에 합의했다.²⁴⁾ 하지만 양측이 충족하는 합의에 이르려면, 아무리 빨라도 지금부터 한두 달은 더 소요될 것이다.

두 개의 전쟁을 종료시키고 나면, 미국은 비로소 중국의 위협 대응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아시아 지역과 중국에 집중하고자 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벌써 1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²⁵⁾ 더 늦기 전에 중국의 위협을 중심으로 모든 대응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다.²⁶⁾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등용된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국무부, 국방부 주요 인사 중에는 중국에 대한 역량 집중을 주장하고, 또 집중 방안을 고민해 온 인물들이 포진되어 있다. 마이크 윌츠 NSC 보좌관, 알렉스 워 부보좌관,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그리고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미·북 회담의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재개된다 해도 거의 임기 끝에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평이다. 더욱이 2024년 12월부터 시작된 한국의 정치 상황이 2025년 봄이 지나야 안정을 어느 정도 회복할 것인데, 미국이 북한문제를 다룰 시기로 이때를 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국 새 정부 취임 전까지는 한국정부로부터 북한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 요청도 덜 받을 것이며, 한국정부와 조율을 한다는 전제하에, 조율하려 해도 한국정부에 권위 있는 최고 의사결정자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북 정상회담이 임기 초에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하나의 변수가 있다.

22) Buchholz, 2025.

23) Masters and Merrow, 2024.

24) 『연합뉴스』, 2025. 2. 13.

25)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2011.

26) Colby, 2021.

트럼프 행정부가 러-우 종전 협상과 연계하여 북한문제를 함께 다룰 가능성이 있다. 관련하여, 당선 후/취임 전 기간 중, 트럼프 인수팀에서 미·북 직접 대화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진 바 있고, 트럼프 당시 당선인은 “북한의 개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복잡”해졌고 “김정은과 잘 지낸다”고 언급한 바 있다.²⁷⁾ 해당 발언으로 미루어볼 때, 트럼프가 종전과 북한을 같이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일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러-우 종전을 위한 협상이 지체없이 계속 전개되고, 트럼프가 푸틴을 만나면서 김정은도 만나고자 한다면, 둘의 만남이 2025년 상반기가 될 수도 있는 일이다.

한편, 김정은 입장에서는 유리한 시기를 따지자면, 러시아 및 중국과 만난 후에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김정은이 푸틴을 다시 만나는 시기와 관련, 오는 5월 9일 러시아의 80주년 전승절이 가능성 높은 시기로 예측되고 있다. 러시아는 이 시기에 맞추어 러-우 전쟁을 종료하고 또 하나의 전쟁 승리를 자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있다.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북한군을, 기념 영화제에 북한 영화를 이미 초청했고, 김정은에 대한 초청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미 시진핑은 초청을 수락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²⁸⁾ 이는 김정은이 초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이기도 할 것이다. 이들과 한자리에서 만난 이후에 트럼프를 만나면 김정은의 자신감이 상승할 것이다.

2. 회담 의제

트럼프는 임기 4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화나 협상을 추구할 것이므로, 북한과 완전한 ‘비핵화’ 협상을 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실 미국 싱크탱크 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고, 그중 일부는 공화당 및 민주당의 공약집에 북한의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²⁹⁾ 더욱이 트럼프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 매달려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미국이 1차적으로 동맹인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달성하고자 했던 것이고, 규칙 기반의 질서나 비확산 등의 국제적 규범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중요시 여겨지던 정책 목표이다. 동맹을 경시하고, 국제적 규범보다 실질적 이해타산이 더 중요한 트럼프에게 매력적인 목표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024년 7월 공화당

27) TIME Staff, 2024.

28) 『연합뉴스』, 2025. 2. 10.

29) 최용환, 2024. 9.

전당대회 시, 트럼프는 “김정은과 잘 지낼 것”, “김정은도 나를 그리워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당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공화당 전당대회 시 트럼프의 김정은에 대한 언급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이 논평의 형식으로 대화의 여지를 두는 듯한 발언으로 대응했다.³⁰⁾ 하지만 이후 비핵화는 흥정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어떤 주제를 다루기 위해 김정은을 만나려 할 것이며, 김정은은 어떤 주제일 때 호응할 것인가? 먼저 트럼프가 러-우 전쟁을 계기로 임기 초에 만날 경우, 비핵화 협상이 아닌 북한에 러-우 전쟁 철수, 한반도 안정, 비확산 자체 등의 요구가 가볍게 이루어지는 대화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워싱턴 내에서는 북한의 한반도에 대한 위협보다도 제3국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을 더 급박하고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다.³¹⁾ 따라서 트럼프는 북한의 전방위적인 공세를 다소 누그러뜨리고 다독이는 대화를 진행한 뒤, 한반도와 세계의 안정에 기여했다고 포장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을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를 진지하게 다루기보다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거나 북한을 관리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아예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한 ‘관광 투자’ 같은 소재로 북한을 유인할 가능성도 있다.³²⁾ 여기에는 미국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먼저 첫 번째는 미국에 대한 ICBM 위협의 관리 차원이고, 두 번째는 중국의 유일한 동맹인 북한과 중국을 탈동조화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이유부터 설명하자면, 최근 국방부 장관과 국무부 장관은 동일하게, 동일한 순서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함께 부과하는 위협에 대해 언급했다. 트럼프 2기의 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의 핵심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들 간의 협력적 접근을 저지하는 데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³³⁾ 미국의 전략태세위원회 보고서,³⁴⁾ 국방전략위원회 보고서³⁵⁾에서 지적하듯, 이는 이전의 전략서들이 인식한 미·중전략 경쟁으로부터 한 단계 나아간 인식으로서, 중국을 나머지 국가와의 협력 가능성을 낮추거나, 중국에 대한 집중을 분산시키는 행동을 억제하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즉,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간의 협력적 접근을 약화시키기 위해 북한에 손을 내밀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이유가 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ICBM을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너무 낮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30) 『연합뉴스』, 2024. 7. 23.

31) Corrado and Garlauskas, 2024.

32) 트럼프는 북한 해안가가 관광부지로서 갖는 잠재성을 언급해 왔다. 『뉴스1』, 2025. 1. 21.

33) Cohen, 2024.

34) Congressional Commission on the Strategic Posture of the United States, 2023.

35) Commission on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2024.

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트럼프가 북한에 큰 대가를 지불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더욱이 대가 지불로 인해 북한의 의지를 영구적으로 구속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미국에 유익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에게는 동맹을 희생시키는 값비싼 대가로 여겨지지만 트럼프가 오히려 내놓고 싶어 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가들이 있다. 그것은 한·미 동맹 약화 조치, 즉 한·미 연합 연습/훈련 축소 혹은 중지, 전략 자산 전개 빈도 축소,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가동 유예(중단), 주한미군 규모의 감축 등이다.

이처럼 미국이 북한의 ICBM에 대한 관리 차원의 협상을 시작한다면, 이것은 언론에서 흔히 언급하는 ‘중간단계’ 협상이 된다. 이 경우는 북한 입장에서도 호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1기 때의 협상을 돌이켜보자면, 북한은 ICBM 시험발사 중단에 더하여 일부 핵 관련 조건이 있는 ‘영변 핵 시설 폐기, ICBM 시험발사 및 핵실험 중단’ 정도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영변 외의 핵 시설이 있으며,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추가 핵실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³⁶⁾ 그 대가로 북한은 트럼프가 내놓고 싶은 대가들, 즉,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위와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같은 협상은 꽤 쉽게 성공할 수도 있다.

이 같은 협상이 아닌, 비교적 상징적 수준으로 종료되는 대화라 할지라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만나서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파병을 한 것은 근본적으로 러시아가 주도한 반미 공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를 통하여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대화를 끌어낸다면, 김정은은 북한 내에 쉬쉬하던 파병을 공식화하면서도,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계기로 트럼프를 만난 것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적으로 자신의 성과에 대해 크게 선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 때 언급했던 ‘최강경대미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트럼프의 양보를 얻어냈다는 식의 선전이 가능하다.

3. 한국과 조율 가능성

우선, 임기 초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게 된다면, 현재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한국과의 조율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한국과 실무 차원의 조율이 추진된다 할지라도, 트럼프 1기 때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 실제 대화가 흘러갈 방향에 대해서는 통제가 어렵다. 당시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과 조율되지 않은 한·미 연합 연습·훈련의 축소를 결정했다. 김정은과의 만남을 조기에 추진하려는 강한 동기가 있다면, 한국과의 조율을

36) 이에 대한 평가는 다소 논쟁적이다. 기술적으로 추가 핵실험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서울평양뉴스』, 2023. 4. 13; *Voice of America*, 2023. 5. 13.

위해 이 계획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이 불리하게 되는 대화나 협상을 추진하려고 할 경우, 이 시기를 오히려 선호할 수도 있다. 한국정부에서 오는 회담에 대한 요구나 회담 결과에 대한 향의가 가장 낮을 시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제 북한과의 대화를 생각하자면 러시아도 이해관계자로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가 더욱 복잡해진 측면이 있다. 북한과의 대화 의제가 북한의 비핵화 외에, 러-우 전쟁에서의 철수, 확산에 대한 자체 요구 등이 된다면, 이는 러시아의 이해관계와도 얽힌 문제가 된다. 더욱이 이때 대화를 통해 북한을 회유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이 중국 및 러시아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함일 것이다. 해당 문제들이 미국의 국익에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이 완화되는 것을 원하는 한국의 입장은 부차적으로 취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이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게끔 만들 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조치는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번째 전화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선박 수출뿐 아니라 유지보수정비(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MRO) 분야에서도 한국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부분이다.³⁷⁾ 피트 헤그세스 장관 역시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함선 건조를 강조한 바 있다.³⁸⁾ 여기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정부가 바라지 않는 조치를 하는 데에 있어 신중함을 기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미·북 회담과 관련하여 한국과의 조율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게 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중-러-북 협력의 연대를 이완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미국이 한국과 조율하고 협력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때의 방향성은 한국과의 역량 통합을 통해 적대국의 연대에 맞서 더욱 강경한 억제 태세를 구축하고 강압 외교를 추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이 가진 막강한 재래식 전력과 경제력을 높이 평가하고, 인도-태평양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해 동맹국 한국을 우대해야 한다는 미국 내 여론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하는데, 이는 북한 위협 대응에만 집중하기를 원하는 기존의 기조에 대한 일부 변경이 요구된다.

37) 『디지털타임스』, 2024. 2. 4.
38) Roque and Insinna, 2025.

IV. 맺음말

본고는 러·북 협력 강화로부터 미·북 대화 가능성까지 연결되는 김정은의 지정학 게임을 그리고자 했다. 러·북 협력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반대함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러시아와 연대한 것이다. 북한은 다극 세계로 가기 위한 수정주의 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원하고, 그와 같은 위상으로 미국을 상대하기를 원한다. 최근 북한을 ‘불량국가’라고 표현한 마르코 루비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도 그 때문으로 판단된다.³⁹⁾ 북한은 러·북 협력을 통하여 위상이 강화됐다고 생각했을 텐데, 중국과 러시아는 수정주의 국가로, 북한은 불량국가로 불리는 것이 매우 불쾌했을 것이다.

북한의 지정학 게임에는 중국도 있다. 북한은 역사적으로 특정 국가와의 관계에 크게 경사되거나 종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동안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로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2025년부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2024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미국을 “반공을 국시로 삼고 있는” 국가로 표현했다. 더불어 짧은 대외 관련 내용에서 “미·일·한 동맹”도 언급했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양자적 관계가 역내 국가 간의 구도 속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미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 또한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북 회담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시진핑은 김정은을 만나려 할 것이며, 이는 김정은의 위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글을 마치기 전에, 이상의 논의들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전개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이대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같은 비중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김정은도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게임’이다. 예를 들자면 김정은은 파병된 북한군이 이처럼 쉽게 많은 피해를 볼지 미처 예상하지 못하여 우려가 커졌을 수 있고, 러시아가 북한이 필요한 첨단 군사기술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푸틴과 갈등 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 이로써 러·북 협력이 북한에는 폐착이 되어 대내외로 야기되는 불안정이 커지게 된다면, 이것은 한국의 국익에 유리한 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과 해당 여건이 왔을 때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할 것이다.

39) 『조선중앙통신』, 2025. 2. 3.

참고문헌

- 임수호, 「용병인가, 동맹군인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득과 실」, 『INSS 이슈브리프』, 제627호, 2024. 11. 18.
- 전경주·두진호, 「북한 특수작전군 파병부대의 예상 임무와 한국의 대응 방향」, 『동북아안보정세분석』, 2024. 11. 7.
- 정은숙, 「“김정은”-‘푸틴’의 접점: 전개, 동기, 정책함의」, 『정세와 정책』, 2015, 3.
- 최용환, 「미국 양당 정강정책에서 北 비핵화 언급 삭제, 배경과 과제」, 『INSS 이슈브리프』, 2024. 9. 6.
- _____,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의미와 쟁점」, 『INSS 이슈브리프』, 2024. 11. 1.
- KOTRA 신북방동북아팀, 『2019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KOTRA자료 20-18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0.
- _____, 『2020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KOTRA자료 21-16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1.
- Buchholz, Katharina, “The Countries Sending the Most Aid to Ukraine,” Statista, 2025. 2. 14.
- Cha Victor, “A Threat Like No Other: Russia-North Korea Military Cooperation,” CSIS, 2024. 6. 17.
- Cohen, Raphael S., “China and North Korea Throw U.S. War Plans Out the Window,” *Foreign Policy*, 2024. 12. 2.
- Colby, Elbrige, *The Strategy of Denial: American Defense in an Age of Great Power Competition*,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2021.
- Commission on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Report of the Commission on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2024.
- Congressional Commission on the Strategic Posture of the United States, *America’s Strategic Posture: The Final report of the Congressional Commission on the Strategic Posture of the United States*, 2023.
- Corrado, Jonathan, and Markus Garlauskas, “The Arsenal of Autocracy: How North Korean Weapons Fuel Conflict—and How to Stop the Flow,” *Foreign Affairs*, 2024. 2. 15.

- Jeon, Kyung-joo, "What the North Korea-Russia Summit Means for the Korean Peninsula," *The Diplomat*, 2024. 9. 26.
- Kim, Lami, "A Race for Nuclear-Powered Submarines on the Korean Peninsula?," Commentary from the Maritime Awareness Project, NBR, 2021. 3. 31.
- Masters, Jonathan and Will Merrow, "U.S. Aid to Israel in Four Chart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24. 11. 13.
-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Remarks By President Obama to the Australian Parliament," 2011. 11. 17.
- Roque, Ashley, and Valerie Insinna, "What Pete Hegseth's hearing tells us about Trump's plans for the Pentagon," *BreakingDefense*, 2025. 1. 14.
- TIME Staff, "Read the Full Transcript of Donald Trump's 2024 Person of the Year Interview With TIME," *TIME*, 2024. 12. 12.

〈보도자료〉

- 『뉴스1』, 「트럼프는 왜 北의 '해안가 콘도' 관심 갖나... '투자'도 협상 카드?」, 2025. 1. 21.
- 『디지털타임스』, 「'트럼프 스톱' 흔들림 없다... K-조선, 기술력으로 정면 돌파」, 2024. 2. 4.
- 『서울평양뉴스』, 「북한, 추가 핵실험 필요 없어... 6차례 실험으로 핵능력 이미 고도화」, 2023. 4. 13.
- 『연합뉴스』, 「북한 '미국의 정치경제적 예측 벗어나야'... 개도국 간 협력 강조」, 2022. 9. 13.
- _____, 「北군사정찰위성 전쟁능력' 어느정도일까... 한미 대응은」, 2024. 1. 18.
- _____, 「평양 공관 재개 못한 유럽 국가들, '북한과 협의중」, 2024. 6. 8.
- _____,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다'는 트럼프에 '미련 부풀려' 선긋기」, 2024. 7. 23.
- _____, 「군, 북 '대형 잠수함 건조' 식별... 원자력잠수함 가능성」, 2024. 10. 8.
- _____, 「블링컨 '러, 北에 첨단 위성기술 공유 의도... 북핵용인 가능성」, 2025. 1. 6.
- _____, 「北, 러와 무인기 공동 개발... 올해부터 양산 가능성」, 2025. 2. 9.
- _____, 「주중 러 대사 '시진핑, 5월 전승절 초청 수락'... 中 즉답 안해(종합)」, 2025. 2. 10.
- _____, 「트럼프, 푸틴·젤렌스키와 통화... 우크라이나협상 즉각 시작 합의(종합 4보)」, 2025. 2. 13.
- 『조선일보』, 「스웨덴 외교관 4년 만에 평양 복귀... 서방국 중 대사관 첫 가동」, 2024. 9. 17.

- 『조선중앙통신』,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는 다른 나라들을 걸고들 자격이 없다」, 2025. 2. 3.
- 『통일뉴스』, 「北,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조약’ 전문 발표」, 2024. 6. 20.
- _____, 「중·러가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2011. 11. 3.
- NK News Podcast, 「The Status of North Korea's Foreign Community」, 2024. 12. 31.
- Voice of America*, 「해커 박사 “북한, 핵탄두 다양화 위한 추가 핵실험 필요”」, 2023. 5. 13.
- _____, 「스웨덴 외교관 평양 복귀…‘대사관 운영,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 2024. 9. 17.
- _____, 「러 푸틴 ‘북한과 합동군사훈련 가능’… 한국 ‘북러 밀착에 단계적 대응’」, 2024. 11. 8.
- _____, 「폴란드, 북한 주재 대사관 4년 만에 재가동…스웨덴 이어 서방국 2번째」, 2024. 11. 16.
- _____, 「미 인테사령관 ‘북한, 러 파병 대가로 잠수함 기술 받을 것’」, 2024. 11. 20.
- _____, 「미 인테사령관 “북한군 파병, 러 요청이 아니라 북한이 제안”」, 2024. 12. 10.